영암군, 군민 참여 월출산국화축제 준비 '순항'

기찬랜드 내달 26일부터 16일간 지역 화훼농가 국화화분 계약 재배 7.1m 고려첨성대 등 조형물 선배 지정 장소서 축제 전시연출 참여

다음달 개최되는 영암 월출산국화축제에서 군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높이 7.1m 고려첨성대, 3.6m의 '하늘아래첫부처 월출산 마애여래좌상'의 아름다운 국화 조형물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10월26일부터 11월10일 까지 16일간 영암읍 월출산기찬랜드 일원에서 개최하는 월출산국화축제 준비가 순항 중이다.

월출산국화축제는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영암군민의 참여'로 이뤄져 타 지역 국화축제와 차별화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지역 화훼 재배 농가들은 축제장 조성에 활용되는 국화 화분을 영암군농업기술센터와 계약 재배해 1년간 정성 들여 키운다. 이 농가들은 축제장 조성 기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전시연출도 맡아 축제 준비에 참여한다.

영암읍 상가들은 영암군으로부터 거리 전시용 국화 화분을 분양받아 자기 가게와 주변 거리에 놓고 물을 주며 관리하며 축제 분위기 조성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농가와 상가 등에서 가꾸는 국화 화분 이외의 전시용 국화작품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국화재배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재배해오고 있으며 올해 고온과 집중호우 피해에도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축제에서 처음으로 관람객에게 선보일 높이 3.6m의 '하늘아래첫부처 월출산 마애여래좌상'과 7.1m 고려첨성대 조형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작품이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막바지 국화재배 과정을 잘 마쳐 10월 말에 최상의 상태로 국화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2024 구인·구직 만남의 날' 성료 목포시 주최… 21개 업체 참여

'2024 목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구인·구직자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에메랄드 웨딩홀에서 열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산단 취업희망센터가 주관했다.

이 행사에는 10개 기업이 현장면접에 참여해 생산직, 사무직, 미화원, 조리사 등 다양한 직종의 구직자를 모집했고, 사전 등록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간접 참여한 11개 기업에는 구직자의 이력서가 전달됐다.

올해 행사에는 구직자 430여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172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다. 11명에 대한 채용이 현장에서 즉시 확정됐고 직·간접 기업체 지원인원 총 241명 중 188명의 채용 결과는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밖에 관내 유관기관도 참여해 일자리사업을 안내하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 구직활동을 지원했다.

참가자들이 즐기며 부대행사로 개최된 퍼스널컬러(맞춤형색상) 진단, 이력서 사진 촬영관, AR(증강현실) 취업 포토 존 등도 구직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한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만족도가 높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만나는 자리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제공에 힘쓰고,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모든 구직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관내 연안 사고 예방 대책 논의 목포해경,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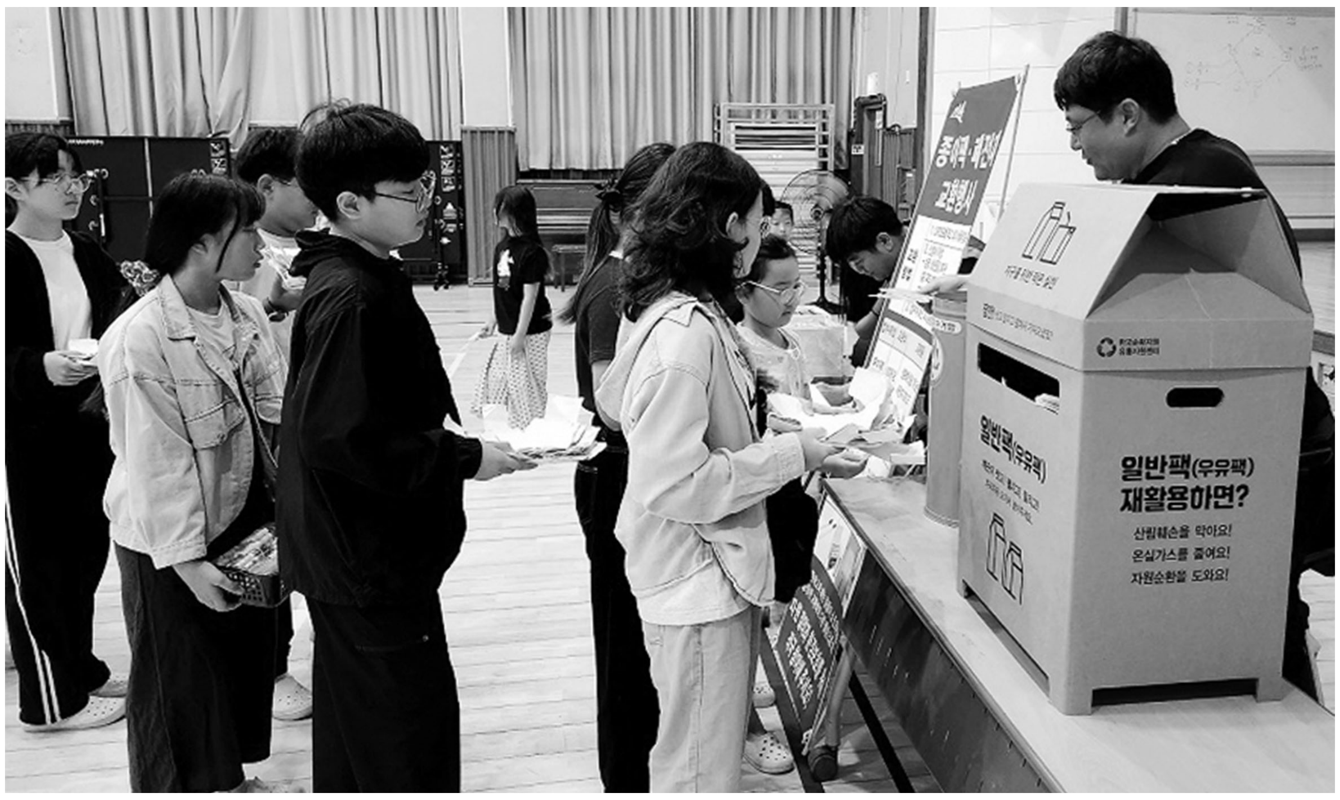
목포해양경찰(서장 권오성)이 지난 26일 '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개최하며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관내 연안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29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소방 등 13개 기관에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사고예방법 주요 내용, 최근 3년간 연안 사고 현황 및 분석, 목포해경 연안 안전관리 성과 및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며 협업에 필요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한데 모여 좋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견고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0년 제1회 지역 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시작으로 관내 연안사고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연안 안전관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 압해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정에서 모은 종이팩을 제출하고 있다. 지난 27일 신안군이 압해초등학교에서 종이팩과 폐전지 교환행사를 열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압해초등학교, 종이팩·폐전지 교환행사

신안군이 지난 27일 압해초등학교(교장 최정아)에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종이팩과 폐전지 교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이팩, 폐전지 등 64kg의 폐자원이 수거되어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압해초등학교와 협업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 주민이 자원 재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2023년부터 '찾아가는 자원 순환 교육', '폐농약류 무상 처리', '폐기물관리 자체평가' 등을 시행해 지역사회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돌봄사각지대 안전 예방 협약 해남군·한전 해남지사·해남전기협

해남군은 지난 24일 한국전력 해남지사(지사장 김찬영), 해남전기공사경영자협의회(회장 이광배)와 돌봄 사각지대 안전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남군은 전남도의 '시군-이전공공기관 연계 롤 모델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고독사, 거동 불편 등 주거 내 돌봄 취약계층 400가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사업 수행 기관 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전력 해남지사는 앞으로 300가구에게 노후 전선 교체 지원, 전기·소방 안전용품을 제공해 전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해남전기공사경영자협의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100가구를 대상으로 무선 전등 리모컨 스위치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손명도 해남부군수는"이번 협약을 통해 해남군과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신안천일염 종합유통센터 문 열어

지난 27일 신안군이 '천일염종합유통센터' 준공식을 열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지난 27일 '신안천일염 종합유통센터' 준공식을 압해읍 송공리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준공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청정 신안갯벌에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을 더욱 고품질의 명품 천일염으로 세척·탈수·건조·포장·유통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 인만큼, 이번 유통센터 준공을 통해 국내외 유통 및 수출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천일염 산업은 신안군의 중요한 자산이자 국가적인 경쟁력이다"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안천일염 종합유통센터는 연간 1만톤의 깨끗한 명품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계통 출하와 수출을 통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천일염 가격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천일염 종합유통센터는 지상 1층 철골 구조로 공장동과 행정동, 연구분석실을 갖추고 있다. 총 대지면적은 1만3489㎡, 연면적은 4952㎡에 달하며 사업비로는 국비 75억원과 군비 95억원 등 총 170억원이 투입됐다.

신안군은 이번 종합유통센터 준공을 계기로, 명품 신안천일염의 수출길을 열어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천일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2025 '뮤직플레이' 총감독 모집 목포시, 10월10일까지

목포시가 '2025년 목포 뮤직플레이'를 독창적이고 완성도 있게 기획·연출할 총감독을 공개모집 한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2025 목포 뮤직플레이'는 근대 대중음악의 본거지인 목포를 명실상부 음악의 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5년 5월 개최되는 목포만의 음악 축제다.

총감독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9월23일) 축제, 문화행사, 이벤트 등 관련분야 단일행사 5억원 이상 규모 합산 5년 이상의 총괄 기획·연출·운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써 총감독으로서의 포괄적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능하다.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을 위해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심사위원회 면접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자세한 공개모집 내용은 목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자우편(pkh7028@korea.kr) 또는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3층 문화예술과)으로 가능하다.

목포=정기찬 기자